

해외 파견대학	독일 / 튀빙겐 대학교	해외파견대학 전공	History (역사학)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4/01	학기 종료일	2026/09/30
출국일	2026/03/03	귀국일	2026/08/20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 Aufbaukurs B2 intensiv - Alltagskommunikation und Umgangssprache B1
		2학기	
	수업방식	Seminar + Interactive Lecture 형태	
	시험방법	기말 대체 발표 과제(조별), 독일어 구술+필기 시험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신청 기간에 대부분 ALMA 시스템을 통해서 과목을 신청해야 하는데, 몇몇 과목들은 교수님께 메일을 통해서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신청해야 함.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International Day	
	기타	Start Course(어학코스), Buddy Program, StudIT(체험 프로그램), AG Program(한국학과 한국어 도움 활동), Tandem Program	
교내편의시설	Mensa (학생식당), 단과대 도서관, 중앙 도서관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6월 초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작성 후 기숙사 업체에게 메일로 제출 -> 기숙사 연장 여부 확인 -> 기숙사 퇴실 몇주 전 날짜 조율하고, Termin 잡기 -> 퇴실 당일 하우스 마이스터에게 방 검사 맡은 후 키 반환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보험 - Mawista (사보험) 해지 은행 - Expatrio 슈페어konto 만료 후 자동 해지 완료 Abmeldung (전출 신고) - 온라인으로 Termin 잡은 후 하기 핸드폰 요금제 - fraenk (E-SIM) 앱에서 해지 신청 가능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캠퍼스 - 튀빙겐 자체가 대학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캠퍼스로 이루어진 느낌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단과대별로 위치가 서로 꽤 떨어져 있지만 도시가 작기 때문에 버스를 통해서 금방 이동할 수 있다. 주변 환경 - 튀빙겐이 굉장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의 교통수단은 버스 밖에 없다. 하지만 근처에 슈투트가르트라는 공항이 있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가로 여행하기 편리하다. 숙소 - 본인이 선택한 기숙사 (Viktor-Renner Str.2)는 튀빙겐 북쪽 Lustnau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기숙사들과는 위치가 꽤 떨어져 있다. 또한 현지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기숙사들처럼 교환 학생들끼리 활발히 교류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동네 치안이 매우 좋고, 중앙 캠퍼스까지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학교를 통학 하기에 편리하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 - 4월 말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보단 비교적 더 춥게 느껴진다. 5월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6월 중순까지는 쾌적한 날씨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년도 6월 말부터 예외적으로 폭염이 발생했기 에어컨, 선풍기가 없는 독일 환경에서 지내기 매우 힘들어진다. (선풍기는 무조건 구매하는것을 추천한다.) 식사 - 외식 비용은 매우 높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장을 보기 매우 편리하다. 튀빙겐 내 한식당은 없기 때문에 한식을 먹기 위해선 슈투트가르트 내 한식당을 가거나, 아시안마켓에서 (비싼)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해먹어야 한다. 물가 - 장바구니 물가와 교통비(도이칠란드 티켓)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물가가 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외식이나 여행을 자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의료 - 처음에는 TK 공보험을 이용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약 140유로), 비용 대비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보험을 취소하고 Mawista 사보험에 새로 가입함. 사보험 금액이 한달에 36유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음. 은행 - Expatrio 슈퍼어콘토를 개설하면서 만든 계좌와 N26 계좌(온라인 계좌)를 사용함. Expatrio 보단 N26이 사용하기 더 편리하기 때문에 개설하는 것을 추천함. 교통 - 튀빙겐 Anmeldung 이후 학생 할인을 받아 월 45유로에 도이칠란드 티켓을 사용함. 이 티켓으로 ICE (고속열차) 제외 독일 내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도시를 무료로 갈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다. 통신 - fraenk E-SIM 서비스를 가입해서 월 15유로에 50GB 데이터 요금제를 씬. 유럽 내 다른국가로 이동해도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이용함.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사전 준비 - 비자 발급(but, 실패함 - 비자는 현지에서 발급받는걸 추천함), 현지에서 사용할 중고 물품 미리 구매, 독일어 어학 공부 및 자격증 준비 현지 생활과의 차이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기초 독일어는 꼭 공부해오는 것을 추천함 문화 충격 - 독일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편 시스템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행정이나 보험 서류가 주로 우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Start Course - 개강 전 진행되는 독일어 어학코스로, 독일어 자격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코스를 수강하면서 독일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 튜터가 학교 생활 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함. Buddy Program -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지학생과 매칭되면 정착 초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친해지며 문화 교류도 할 수 있다. Tandem Program - 버디 프로그램과 비슷하며, 한국어-독일어로 교류하며 서로의 언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 본인은 한국학과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신청함. AG Program - 한국학과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 봉사료, 한국학과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며 친해질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을 다 끝내면 교육봉사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교환 파견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교환학생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독일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가지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한 시간들이었어요. 꼭 오셔서 많은걸 느끼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파견대학	독일 / University of Tübingen		해외파견대학 전공	Business & Economics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4/13		학기 종료일	2026/07/20
출국일	2026/03/03		귀국일	2026/08/20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German A1.1 for Erasmus and Exchange Students Consumer Behavior	
		2학기		
	수업방식	Oral participation, independent study, literature study		
	시험방법	Written exam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독일어 수업의 경우, 정식 수강신청 전에 구글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의 일반 수업은 튀빙겐 대학교 시스템인 ALMA나 ILIAS를 통해 수강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강 인원이 초과될 경우 랜덤 배정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2안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경제대학 기준 Written Test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를 활용해 학기 초반에 여러 강의를 신청해 들어본 후,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International Day		
	기타	Buddy Program, Tandam 및 AG Program		
교내편의시설	도서관, 멘자 (학생식당)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 관리자와 사전에 방 검사 날짜 및 시간을 조율하여 테어민(예약)을 잡습니다. 테어민 시간 전까지 개인 짐을 모두 빼고 방을 완전히 비우고 공용 공간(욕실,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기숙사 열쇠를 반납합니다. 기숙사 계약은 한 달 단위로 처리 되므로 7월 말 혹은 8월 출국일 전날에 기숙사 퇴실 테어민을 잡으시면 됩니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도이칠란드 티켓(독일 교통권), 반카드(교통비 할인권) 해지 튀빙겐 전출 신청 튀빙겐 대학교 등록 철회 통신세, 라디오세 해지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캠퍼스 - 튀빙겐은 도시 자체가 캠퍼스여서 대학생이 많고, 다양한 인종과 국제 학생 비율이 높아 적응하기 비교적 쉬웠습니다. 또한, 한국학과에서 다양한 행사들 (Stammtisch, 한복입기체험 및 다양한 강연들, 탄뎀 및 아게 활동)을 운영하여 한국 교환학생 및 독일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캠퍼스가 있고 캠퍼스마다 멘자(학생식당) 및 도서관이 있어 이동 동선이 가깝습니다. 주변환경 - 대중교통이 새벽까지 운영되고 늦은 시간까지 다녀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1시간 거리에 슈투트가르트 공항이 있습니다. 모든 기숙사 주변에 마트가 있고, 중앙역 근처에 대형마트가 모여 있습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 - 3월부터 현재까지 기온은 5도~30도 사이로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은 기온입니다. 6월 4주차에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강의실 및 도서관 에어컨이 없고, 대중교통 음식점 등에도 에어컨이 거의 없어서 체감 더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숙소(기숙사) - 기숙사 옵션이 다양합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면 WHO를 추천드리나, WHO는 건물마다 편차가 심해 타 기숙사 옵션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는 300유로대 초중반입니다. 식사 및 비용 - 독일 외식물가는 비싼 편이라 장을 보고 보통 집에서 해먹습니다. 장보기 물가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팁 문화는 독일 중심지, 튀빙겐 내 새로 생긴 음식점에 있으나, 팁을 주지 않는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의료 - 저는 병원에 가본적이 없지만, 보통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상비약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행 - 재정증명 한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으며, 부족한 돈은 트레블 비자 카드(수수료가 가장 적음)로 사용 중입니다. 교통 - 3-10분 정도의 버스 연착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또한 기차는 연착이 기본이며 심하면 2시간, 종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운영을 종료해 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은 ICE (고속열차)를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신 -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프랭크 또는 알디톡을 사용합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사전준비 - 튀빙겐 학생 등록 완료, 재정 증명, 공보험 가입, 영어 회화 공부 현지 생활과의 차이 - Joyboy, Amazon Prime 등 이커머스 플랫폼이 잘 되어있어 택배 주문하면 이를 내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식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독일 분들 대부분이 영어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문화충격 - 마트 등 대부분의 상점이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또한, 기차가 끊겨서 대체 버스를 2시간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신선한 문화충격이었습니다. Lecture 강의지만 수업시간에 교수님과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수업이 마치면 박수 대신 책상을 두드립니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Buddy Program - 출국 전 튀빙겐 현지 학생과 1:1 매칭되어 입국 초반 정착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ndem Program - 한국학과 내 Buddy인 프로그램입니다. 베이킹, 댄스 등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AG Program - 한국어 교육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주에 한 번 만나 파트너의 한국어 숙제와 저의 독일어 숙제를 서로 공유하고 알려주며 공부했습니다. 영어 회화, 한국어, 독일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활동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International Day - 5월 초 한국 대학 소개 및 한국 문화 등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 또한 활동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교환학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타국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울타리 덕분에 비자 발급도 수월했고, 국제처 장학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며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볼 수 있었고, 이곳에서 멋진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4개월 동안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진 않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독일어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여행가는 나라마다 인사말 정도 공부하다보니 언어 자체에 대한 흥미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해외 파견대학	독일 / 튀빙겐 대학교	해외파견대학 전공	Geoscience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4/13	학기 종료일	2026/07/22
출국일	2026/03/02	귀국일	2026/08/29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 Remediation of Contaminates Sites - Environmental Isotope Chemistry - German A1.1 For Erasmus and Exchange Students
		2학기	
	수업방식	강의, 조별활동, 발표, 토론, 실험 등 수업별로 상이하다.	
	시험방법	Written Exam 혹은 발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Geoscience 전공의 경우 겨울 학기는 영어로 진행하는 학부생을 위한 수업이 있지만 여름학기에는 없기에 전공 수업으로 석사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Tandem(언어 교환 프로그램), Studit(One Day Trip)	
	기타		
교내편의시설	Mensa(학생식당), 도서관, 프린터기 등등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Geoeg-Farhbach-Haus의 경우 이과캠퍼스와 가깝다는 이점이 있지만 Hausmaister가 상주하지 않고 꽤나 빈번히 바뀌는 편이기에 문제가 생겼을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기숙사 비용은 입주전 입주하는 날에 해당하는 달의 월세와 함께 1개월치 월세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퇴소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후 매달 초에 당월 월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퇴실하기 전 Hausmaister에게 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아직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지 않아 해지를 하진 않았지만, 교통권(D-Ticket)과 통신사 구독을 해지해야한다. 교통권의 경우 해지를 일찍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지시기를 잘 고려해야한다.		
기타참고사항	비행기표는 왕복으로 한번에 결제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튀빙겐 대학교의 경우 도시 전체에 대학 건물이 흩어져 있어 강의 시간 틈에 여유를 두고 시간표를 짜야한다. 이와 캠퍼스의 경우는 Moegenstelle 혹은 Sand 캠퍼스에 대학 건물이 모여있지만, 문과는 특정한 캠퍼스가 없어 수업 건물이 꽤나 흩어져 있다고 들었다. 튀빙겐이라는 도시 자체는 대학도시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대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더불어 인종도 다양한데 그래서인지 인종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또한 교환학생 중 한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식당이 도시 내에 없고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지만 한적하고, 안전하며 고전적인 아름다운 도시이다. 근교에 대도시인 슈투트가르트와 있고, 스위스와 프랑스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한다면 최적의 도시가 될 것이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좋지 못한 날씨로 유명한 독일 답게 흐린 날이 꽤나 많은 편이지만, 여름 학기의 경우 맑은 날이 꽤 많고 습하지 않아 날씨 자체의 만족도는 좋은 편이다. 그렇지만 독일 전체에 에어컨 보급률이 3%밖에 안되는 만큼 폭염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밤 10시까지 해가 채 지지 않는 습하지 않은 여름 날씨를 즐길 수 있다. 나의 기준으로 평균 독일 외식 물가는 15유로 정도로 한국에 비해 많이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해먹는 편이다. 빵집에서 파는 빵도 종류가 다양하며 저렴하기 때문에 외출 시 식사를 빵으로 대신하는 때도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독일에 와 병원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는 바가 없지만 독일은 진료를 받으려면 테어민(약속)을 잡아야 한다고 들었다. 혹은 오픈런을 하는 것도 가능한 듯 하다. 은행은 보통 엑스파트리오에 들어온 돈을 바로 쓰거나 Wise같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 현금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실물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통신으로 Fraenk의 Esim을 이용하는 중인데 타교환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알디톡이다. 그러나 스위스와 영국은 따로 데이터를 구매해야하는 알디톡과 달리 프랭크는 유럽 전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가격은 둘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프랭크의 경우 한국에서 사전에 등록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바이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한국에서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혼성으로 기숙사를 쓴다는 점이 꽤나 낯설다. 공유하는 부분은 주방과 방 앞 복도, 화장실 정도이지만 상의를 탈의하고 주방과 화장실, 복도 등을 돌아다니는 남학우들의 모습이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사전 준비 시에도 예상은 하였지만 현지에서 더더욱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오는 것도 좋을 거 같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파견교 국제교류부에서 International Day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해 교환학생들의 교류의 장을 열어주었다. 또한 개강 일주일 전 교환학생들의 개강맞이 준비를 도와주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IC Course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트립을 저렴한 가격(5유로)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는 Studit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파견 오기 전 6개월은 마냥 짧다고 생각했지만 생활하다보니 꽤나 긴 시간인 거 같습니다. 한국이 그리워질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교환을 오기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된 거 같아 한편으로 기쁘기도 합니다. 교환학생 기간은 저에게 '홀로서기'를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순간이 되었고 이 보고서를 읽고 계신 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